패밀리 투게더,
한번 로타리안이면 영원한 가족으로

ROTARY:
MAKING A DIFFERENCE
로타리, 변화를 만들자

국제로타리 3650지구
총재 **이순동**

어느덧 2017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제가 총재로 취임한 이래 근 반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협력해주신 클럽 회장–총무님, 지구 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해가 바뀌면 사람들은 대부분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새해인사를 합니다.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인사가 '복 많이 받으시라'는 것인데, 우리말 가운데 '복(福)'이란 말처럼 무한대의 뜻과 에너지를 지닌 말이 또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온가족이 건강하고, 부자 되고, 승진하고 출세하는 것, 대학입시나 입사시험에 합격하는 것과 같이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은 대개 비슷합니다. 이 모든 걸 소원성취하도록 해주는 에너지가 바로 '복(福)'인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행동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복을 짓는 것, 즉 발복(發福)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복을 까먹는 것, 즉 감복(減福)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모든 언행은 반드시 발복과 감복,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단 0.1%라도 발복과 감복 한쪽에 치우치게 되지 그 중간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언행이 발복하는 것이냐, 감복하는 것이냐를 생각해보면서 항상 복을 지으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우리 로타리안은 복을 짓는 사람입니다. 아프고 약한 이들을 돕고,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선의를 실천하는 분들이 로타리안입니다. 새해에도 발복하는 일 많이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3650지구 로타리 가족 여러분.

지난 6개월간 우리 지구에는 크고 작은 행사가 많았습니다만, 무엇보다 클럽을 찾아가는 총재공식방문 주회가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51개 클럽을 방문했으니까 사흘에 한 번 꼴로 방문한 셈이고, 그때마다 회원 한 분 한 분을 직접 만나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가운데서 'Family Together' 회원증강전략에 공감하고 적극 협력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고마웠고

> 현재 한양, 한성에 이어 무악로타리까지 하면
> 3개 대형클럽이 만들어지므로
> 2개 클럽만 더 동참해준다면 Best 5는 당장 실현 가능한
> 목표가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우리의 전환점,
> 'Pride of RI3650'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Family Together
D.3650RI (2017-18)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거의 대부분의 클럽이 금회기 목표를 상향 재설정함으로써 우리의 전망을 밝혀주셨습니다.

지구의 시급한 현안이 회원증강인데 금회기 초 1,992명에서 시작하여 11월부터 2천 명을 넘어섰고 12월에 2,100여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런 추세로 더 노력하면 2,500명 목표가 가능하리라는 확신이 듭니다.

우리 지구는 회원수 부문에서 우리나라 19개 지구 가운데 하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종주지구로서 역사와 전통을 생각한다면 너무 초라한 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형클럽 부문에서는 경쟁력이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100명 이상의 대형클럽을 5개로 늘리는 데 집중한다면 Best 5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한양, 한성에 이어 무악로타리까지 하면 3개 대형클럽이 만들어지므로 2개 클럽만 더 동참해준다면 Best 5는 당장 실현 가능한 목표가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우리의 전환점, 'Pride of RI3650'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원–재단기부–봉사'는 로타리클럽을 받쳐주는 세 개의 기둥입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도 이 세 개의 기둥을 더욱 튼튼히 하는 데 클럽 회장–총무님들께서 앞장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연말연시에 클럽마다 여러 행사가 있을 텐데 개인 사정상 클럽을 떠났던 분들, 휴면회원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이 다시 클럽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Family Together'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Family Together'란 자녀나 후배와 같이 젊은 세대에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옛날의 OB회원, 휴면회원이 다시 클럽으로 돌아오는 것도 신입회원 영입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한번 로타리안이면 영원한 로타리 패밀리다, 이러한 생각으로 휴면회원의 복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가을이면 자신이 태어났던 강으로 되돌아오는 연어의 회귀처럼, 탈회했던 OB회원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볼 것을 권유합니다.

이제 로타리는 '나 홀로'가 아니라 '가족연합'으로, 가족과 함께 가야 합니다. 로타랙트 출신 젊은이를 로타리로 연계시켜주고, 옛 OB회원을 클럽이나 위성클럽으로 복귀하도록 하는 것들이 모두 '가족연합'으로 가는 길입니다.

씨앗 하나가 싹을 틔워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듯이, 클럽 지도자 여러분의 의지 하나가 밀알이 되어 우리 3650지구가 큰 나무가 되고 멋진 숲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로타리 가족 여러분, 즐거운 성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